https://doi.org/10.14400/JDC.2017.15.6.513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현미
우석대학교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on College Adaptation after Military Service

Hyoun-Mi Kim
Woos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군복무 후에 복학한 남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학업적응과 대학환경적응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과 자아탄력성의 낙관적태도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의 사회적응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미래계획과 자아탄력성의 낙관적태도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의 개인-정서적응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와 자아탄력성의 자신감 간에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보다 대학생활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복무 후 복학한 남학생만의 자료 수집을 통해 밝힌 본 연구의 의의와 더불어서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군 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 위계적 회귀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after military service influence college life adjustment. For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234 male college students who returned to the four-year university in Jeonbuk a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SPSS 18.0.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s, the subscale adaptation of college life adjustment and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goal selection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optimistic attitude of ego-resilience. Future pla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ptimistic attitude of ego-resilience and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of college life adapta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valuation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self-resilience confidence. As a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ego-resilience had more influ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tha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hich was revealed through data collection only for students who came back after military service.

Key Words : After Military Service-Collegian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elf-Resilience,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Hierarchical Regress Analysis

Received 4 May 2017, Revised 31 May 2017
Accepted 20 June 2017, Published 28 June 2017
Corresponding Author: Hyoun-Mi Kim(Woosuk University)
Email: khm2606@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개인의 진로를 전 생애(life-span)와 생애 공간(life-space)적 관점에서 제시한 Super[1]는 대학생 시기를 미래 직업세계 진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아개념 확립과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 나가는 탐색기(Exploration)라고 하였다. 즉 대학생들은 전 생애적 발달단계에 따라 대학교 환경 속에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대학생활에 적응[2]을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자기이해와 직업이해 그리고 특정한 직업적 선호를 결정하여 다음 단계의 발달과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 개인의 생애 공간적 진로 발달은 연대기적으로 삶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1]. 그러나 한국 남학생들은 군복무라는 생애역할 수행이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한국 남성들의 군 입대 연령은 주로 19세에서 25세로 매년 20만여 명이 입대하고 있다. 2015년 국가지표체계 통계에 따르면 현역병입영인원 249,477명 중에 병역법상 징병적령에 도달하여 징집되는 인원은 111,971명이다. 징병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74,108명이 대학이상의 학력자이었고[3], 모집방법 가운데 입영을 선택하는 137,506명을 고려한다면 한 해에 10만여 명 이상이 대학생 시기에 생애공간을 달리하여 그에 맞는 역할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대학교에 재학하던 남학생들이 군복무를 위해 학교에서 군대로 삶의 공간을 바꾸게 되는 것은 학생에서 군인으로 엄연히 구별된 역할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편,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들 역시 다시 학교생활에 새롭게 적응해 나가야 한다. 이는 한 개인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군대로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복학을 통해 다시 대학교 공간으로 전환이 이뤄진 후에야 직업세계에 입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까닭에 대학생활적응은 직업세계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진로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우관계의 갈등해결, 역기능 가정의 문제 부모 또는 부모와의 친밀도, 인정과 관심, 교수자와의 친밀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로 제시되었다[4, 5, 6]. 또한 간호학과 편입생과 일반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혜경과 정수경[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편입생은 소외감과 대인관계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재학생은 소외감과 성취스트레스 변인이 유의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편입시 교우 또는 가족 그리고 교수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원만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김종운과 최미숙[8]은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부모애착보다 대학생활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 변인보다 개인내적 변인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자존감과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같은 내적요인이 대학생활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제시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9]. 또한 김민정[10]은 내적 귀인성향과 타인귀인성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내적변인인 귀인성향의 직접적인 영향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임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학생 외에도 신입생이나 편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김선영[11]에 의하면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들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높은 의지를 갖고 있어서 학업동기와 성취도가 높은 반면 대인관계 형성에는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군 제대 후 복학 초기에는 소외감과 기존 관계의 상실감 그리고 변화된 교과과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개인의 내적변인에 주목한 김옥희와 차주환[13]은 군복무 경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진로성숙과 행복 수준이 높고, 진로성숙수준이 군복무경험 인식과 행복과의 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자아탄력성이 높은 병사들일수록 군 생활을 더 잘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14,15].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상황적 필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자아통제 수준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군복무 후에 복학을 결정하고 대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대학생활적응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내적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잘 해낼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믿음으로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로발달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1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복무 후 복학한 남학생을 대상

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과이 대학생활적응의 어떤 관계가 있으며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검증하고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 간에 상관이 있는가?

둘째,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북권에 소재한 J대학교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가운데 군복무 후 복학한 남학생과 이들에게 소개받은 군필자로써 복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25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명의 설문자료를 제외하여 총 234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Taylor와 Betz[17]가 개발하고, Betz와 Voyten[18]이 하위요인별로 5개의 문항들을 선별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 CDSE-SF)로 구성한 척도를 이기학과 이학주[19]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단축형은 총 25개 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5개 하위요인은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등으로 진로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확신과 자신감 즉, 신념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이기학과 이학주[19]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하위영역 자기평가 .76, 직업정보 .68, 목표선택 .75, 미래계획 .79, 문제해결 .7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는 .92이고, 하위요인 직업정보 .78, 목표선택 .80, 미래계획 .76, 문제해결 .63, 자기평가 .79로 나타났다.

2.2.2 자아탄력성

Klohenn[20]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박현진[21]이 번안하고 윤재연[22]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자신감 5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7문항, 낙관적 태도 6문항, 분노조절 2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가 탄력적임을 의미한다. 윤재연[22]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Cronbach's α는 자신감 .79, 대인관계 효율성 .84, 낙관적 태도 .83, 분노조절 .7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는 .89였으며 하위요인 Cronbach's α는 자신감 .83, 대인관계 효율성 .70, 낙관적 태도 .66, 분노조절 .77로 나타났다.

2.2.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23]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24]이 번안한 것을 김효원[25]이 5점 Likert척도로 재구성한 67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네 가지 하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이다. 원척도에서 하위척도는 .73에서 .83이었으며 전체척도의 Cronbach's α는 .94이었다. 김효원(2005)의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Cronbach's α계수는 학업적응 .83, 사회적응 .82, 개인-정서적응 .80, 대학환경적응 .75이었으며 전체 Cronbach's α계수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하위요인 신뢰도계수는 학업적응 .83, 사회적응 .68, 개인-정서적응 .77, 대학환경적응 .62로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치,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와 측정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1단계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투입하고, 2단계로 자아탄력성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남성 234명(100%), 연령은 23세 미만 166명(70.9%), 23세 이상 68명(29.1%)이었다.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 31명(13.2%), 2학년 105(44.9%), 3학년 79명(33.8%), 4학년 19명(8.1%)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N=234)

Categorie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234	100
Age	under 23	166	70.9
	over 23	68	29.1
Grade	Freshman	31	13.2
	Sophomore	105	44.9
	Third grade	79	33.8
	Fourth grade	19	8.1

3.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과의 Pearson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2〉 과 같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의 학업적응에 대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목표선택(r=.54, p < .01)과 자아탄력성의 낙관적태도(r=.70, p < .01)가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활적응의 사회적응에 대해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미래계획(r=.59, p < .01)과 자아탄력성과의 낙관적태도(r=.60, p < .01)와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한편 대학생활적응의 개인-정서적응에 대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r=.33, p < .01)와 자아탄력성의 자신감(r=.60, p < .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적응의 대학환경적응에 대해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목표선택(r=.45, p < .01)와 자아탄력성의 낙관적태도(r=.65, p < .01)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3.3.1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적응에

<Table 2> Correlation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go-Resilienc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go-Resilienc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78**	1											
3	.72**	.75**	1										
4	.58**	.59**	.66**	1									
5	.52**	.56**	.58**	.48**	1								
6	.22**	.28**	.25**	.14*	.32**	1							
7	.13*	.14**	.18**	.14*	.31**	.72**	1						
8	.41**	.44**	.40**	.26**	.38**	.68**	.48**	1					
9	.08	.07	.01	.06	.16*	.64**	.58**	.44**	1				
10	.52**	.54**	.51**	.33**	.48**	.54**	.41**	.70**	.31**	1			
11	.58**	.57**	.59**	.37**	.40**	.38**	.29**	.60**	.18**	.72**	1		
12	.23**	.25**	.18**	.12	.33**	.60**	.48**	.54**	.54**	.64**	.39**	1	
13	.44**	.45**	.39**	.24**	.28**	.49**	.34**	.65**	.25**	.76**	.75**	.57**	1
M	3.35	3.34	3.31	3.27	3.06	3.46	3.30	3.41	3.46	3.00	2.97	3.13	3.18
SD	.66	.65	.66	.57	.72	.79	.61	.59	1.00	.44	.43	.49	.44

*p<.05, **p<.01, ***p<.001

주: 1. occupation information, 2. goal selection, 3. planning, 4. problem solving, 5. self-appraisal, 6. confident, 7. interpersonal relation, 8. optimism, 9. anger control, 10. academic adaptation, 11. social adaptation , 12.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13. college environmental adaptation

<Table 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academic adaptation

Variables	B	SE B	β	t	F	R^2	$\triangle R^2$
	1.632	.146					
occupation information	.123	.059	.186	2.070*			
goal selection	.139	.063	.208	2.189*			
planning	.109	.062	.165	1.768			
problem solving	-.090	.056	-.118	-1.624			
self-appraisal	.140	.041	.230	3.422***	26.070***	.364	.350
(constant)							
occupation information	.094	.049	.142	1.930			
goal selection	.057	.053	.085	1.078			
planning	.071	.051	.108	1.392			
problem solving	-.046	.046	-.060	-1.006			
self-appraisal	.069	.034	.113	1.996*			
confident	.066	.044	.119	1.515			
interpersonal relation	.038	.047	.052	.799			
optimism	.324	.047	.437	6.891***			
anger control	-.012	.026	-.028	-.469	35.797***	.590	.573

*p<.05, ***p<.001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1단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의 β값이 .186($p < .05$), 목표선택 .208($p < .05$), 자기평가 .230($p < .001$)이었으나, 2단계에 자아탄력성이 투입되면서 자기평가의 β값이 .113($p < .05$)으로 줄어들었으며 직업정보와 목표선택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적 태도는 β값이 .437($p < .001$)으로 학업적응에 대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단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만 투입하였을 때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인 학업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6.4%(R^2=.364)이었으며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투입되면서 설명력이 22.6%가 증가하여 총 59%(R^2=.590)가 되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적태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도 대학생활적응의 학업적응에 고유한 영향력과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낙관적태도(β=.437), 자기평가(β=.113)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3.3.2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1단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의 β값이 .251($p < .001$), 미래계획은 .333($p < .001$)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자아탄력성이 투입되면서 직업정보는 .207($p < .001$), 미래계획은 .286($p < .001$)으로 줄어들었다.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적 태도는 β값이 .402($p < .001$)으로 사회적응에 대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단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만 투입하였을 때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인 사회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0.9%(R^2=.409)이었으며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투입되면서 설명력이 12.2%가 증가하여 총 53.1%(R^2=.531)가 되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적태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고유한 영향력과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통제했을 때도 대학생활적응의 사회적응에 영향력이 나타났다.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낙관적태도(β=.402), 미래계획(β=.286), 직업정보(β=.207)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Table 4>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social adaptation

Variables	B	SE B	β	t	F	R^2	$\triangle R^2$
(constant)	1.542	.140					
occupation information	.165	.057	.251	2.911***			
goal selection	.114	.061	.172	1.882			
planning	.218	.059	.333	3.697***			
problem solving	-.086	.053	-.113	-1.614			
self-appraisal	.019	.039	.032	.487	31.613***	.409	.396
(constant)							
occupation information	.136	.052	.207	2.635**			
goal selection	.060	.056	.091	1.080			
planning	.187	.054	.286	3.448***			
problem solving	-.059	.048	-.078	-1.218			
self-appraisal	-.028	.036	-.046	-.762			
confident	-.029	.046	-.052	-.619			
interpersonal relation	.062	.050	.087	1.249			
optimism	.295	.050	.402	5.927***			
anger control	-.014	.028	-.032	-.502	28.196***	.531	.512

**p<.01, ***p<.001

3.3.3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1단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의 β값이 .315($p < .001$)로 나타났다. 2단계에 자아탄력성이 투입되면서 자기평가는 .159($p < .05$)으로 줄어들었다.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의 β 값은 .220($p < .05$), 낙관적태도 .212($p < .001$), 분노조절 .270($p < .001$)으로 개인-정서적응에 대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단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만 투입하였을 때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인 개인-정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13.0%(R^2=.130)이었으며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투입

<Table 5>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s hierarchical regresskon ananlysis on invidual-emotional adaptation

Variables	B	SE B	β	t	F	R^2	$\triangle R^2$
(constant)	2.431	.192					
occupation information	.052	.078	.070	.665			
goal selection	.122	.083	.163	1.466			
planning	-.078	.081	-.105	-.963			
problem solving	-.086	.073	-.100	-1.177			
self-appraisal	.216	.054	.315	4.001***	6.840***	.130	.111
(constant)	1.345	.196					
occupation information	.022	.063	.029	.345			
goal selection	.048	.068	.063	.701			
planning	-.058	.066	-.078	-.878			
problem solving	-.057	.059	-.066	-.964			
self-appraisal	.109	.044	.159	2.456*			
confident	.138	.057	.220	2.431*			
interpersonal relation	.018	.061	.023	.301			
optimism	.176	.061	.212	2.907 **			
anger control	.133	.034	.270	3.975***	21.022***	.458	.436

*p<.05, **p<.01, ***p<.001

<Table 6>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college environmenta adaptation

Variables	B	SE B	β	t	F	R^2	$\triangle R^2$
(constant)	2.156	.161					
occupation information	.150	.065	.226	2.298**			
goal selection	.168	.070	.250	2.403**			
planning	.075	.068	.113	1.101			
problem solving	-.098	.061	-.127	-1.595			
self-appraisal	.012	.045	.020	.274	13.758***	.232	.215
(constant)	1.294	.170					
occupation information	.123	.055	.185	2.246**			
goal selection	.077	.059	.114	1.295			
planning	.022	.058	.034	.385			
problem solving	-.045	.051	-.059	-.875			
self-appraisal	-.060	.039	-.099	1.564			
confident	.084	.049	.150	1.697			
interpersonal relation	.040	.053	.055	.750			
optimism	.356	.053	.480	6.750***			
anger control	-.044	.029	-.100	-1.501	23.355***	.484	.463

*p<.05, ***p<.001

되면서 설명력이 32.8%가 증가하여 총 45.8%(R^2=.458)가 되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과 낙관적태도, 분노조절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도 대학생활적응의 개인-정서적응에 고유한 영향력과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분노조절(β=.270), 자신감(β=.220), 낙관적태도(β=.212), 자기평가(β=.159)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3.3.4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대학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1단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의 β값이 .226($p < .05$), 목표선택은 .250($p < .05$)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자아탄력성이 투입되면서 직업정보는 .185($p < .05$)으로 줄어들었으며 목표선택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적태도의 β값은 .480($p < .001$)으로 대학환경적응에 대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단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만 투입하였을 때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인 대학환경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23.2%(R^2=.232)이었으며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투입되면서 설명력이 25.2%가 증가하여 총 48.4%(R^2=.484)가 되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적태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도 대학생활적응의 대학환경적응에 고유한 영향력과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환경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낙관적태도(β=.480), 직업정보(β=.185)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군복무 후 복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대학생활적응 변인의 각 하위요인 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에 정적 상관을 제시한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8,26,27,28,29,30].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락적으로 일치한다[10, 31].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대학생활적응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이 부분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 중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R^2=.364)와 더불어 자아탄력성의 낙관적태도(R^2=.590)로 인해 더 높은 설명량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군복무를 마친 복학생들이 군대를 가기 전과 다르게 더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높은 학업동기를 제시한 김선영[11]의 질적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군대로의 생애 공간 전환기를 거친 복학생들은 과업수행을 중시하는 군대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그리고 학교 졸업 이후에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숙고함으로써 학업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낙관적 태도는 복학 후에 낯선 대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잘 되리라고 생각하거나 일이 잘못되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학업수행을 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과 미래계획(R^2=.409)에 더해 자아탄력성의 낙관적태도(R^2=.531)로 인해 더 높은 설명량이 제시되었다. 이는 군복무 후에 복학한 남학생들이 관심 직업을 찾고, 그 관심 있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복학 및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을수록 대학 사회에 더 잘 적응하는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낙관적태도는 학교로 복귀한 후에 어렵고 힘든 측면보다 좋은 측면을 찾기 위한 노력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한다. 이에 학교 행정 체계, 교수 그리고 교우들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수와의 개별 상담 그리고 교우관계 증진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사회적응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아탄력성 중 낙관적태도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사회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8,26].

또한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R^2=.130)에 더해 자아탄력성의 자신감, 낙관적태도, 분노조절(R^2=.458)로 인해 더 높은 설명량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 댄스 동아리 참여 동기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의 개인-정서적 요인에 자아탄력성의 긍정적 미래지향성과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절이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32] 자아탄력성이 감정노동자인 관광업체 종사자들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33]. 이는 군복무를 마친 복학생들이 대학생활 중에 심리적, 신체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에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역경 극복과 적절한 자아통제를 함으로써 학생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복학생들은 군대로 생애공간이 전환되기 전보다 더 높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생활 중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신념과 탄력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대학환경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R^2=.232)에 더해 자아탄력성의 낙관적태도(R^2=.484)로 인해 더 높은 설명량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의 낙관적태도가 대학환경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김종운과 최미숙[8]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군복무 후 복학한 대학생활의 만족도와 학업몰입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관심 있는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태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인 군복무 후에 복학한 남학생들은 군에서 학교로 생애공간이 전환된 특성상, 대학생활에 대한 높은 적응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만을 위

한 특성화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 증진 집단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개인 상담을 통해 조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복무 후 학교로 돌아온 복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차원에서 교수와의 개별면담과 실제적인 직업정보 탐색을 마련하고 취업지원을 모색하는 대학정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역의무를 갖고 있는 남학생들 가운데 군복무 후 J 대학교에 복학하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234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이는 군복무 후 대학교로 복학한 전체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군복무가 아닌 다양한 개인형편에 의해 휴학 후, 복학한 학생들에 대한 비교집단이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되는 변인이며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적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대학생활적응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자아탄력성 변인이 군복무 후 복학한 남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기질 및 성격특성 변인을 고려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D. E. Super,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1990.

[2] G. R. Kenneth, P. D. Jacqueline, “Perfectionism and Self-development: Implication for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 80, No. 2, pp. 188-196, 2002.

[3]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2016). http://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33&gsgeul_no=1485213

[4] J. H. Lyu, “Mediation Effect of Professor Intimacy and Moderation Effect of Professor Expertise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ollege Adaptation.”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4, No. 2, pp. 21-37. 2014.

[5] J. A. Park, M. K. Jin, “The Moderating Effects of Close Social Relationships: Psychological Sepatation and College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22, No. 1, pp. 101-123. 2015.

[6] S. H. Jang, Y. H. Chun, S. S. Ham, “The effects of Peer Relationship and Dysfunctional Family on Life Adjustment in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6, pp. 539-548, 2014.

[7] H. K. Cho, S. K. Chung, “Relationship among College Life Stress, Alienation and College Adjustment: Focused on Transferred and Non-transferr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5, pp. 2779-2793, 2015.

[8] J. U. Kim, M. S. Choi,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achment, Ego-Resilience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0, No. 2, pp. 45-68, 2013.

[9]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10] M. J. Kim,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etween Attribution style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4, No. 2, pp. 139-154, 2011.

[11] S. Y. Kim, “A Study of Attitudes toward College Llife among Male Undergraduate Students Who Completed the Military Servic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2, No. 2, pp. 127-156, 2016.

[12] H. L. Noh, H. K. Kim, S. H. Park, J. Y. Yang, W. J. Lee, J. H. Jeon, N. K. Jo, E. J. Shim, “Mixed method study on University Adaptation Experience

of Returning Students after the Military Service Focused on Academic, Interpersonal, and Career related area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6, No. 4, pp. 621-642, 2015.

[13] O. H. Kim, J. H. Cha,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Matru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Service Experience Recognition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6, No. 2, pp, 309-324, 2015.

[14] H. Y. Lee, "The difference of adjustment military life according to the level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f Soldiers". A master's thesis, p. 35-54,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2011.

[15] E. Y. Jeong, Y. S. Hah, "The Effect of Ego-Resiliency, Social Support, Military Life Satisfaction on Growth Related Military Service in Korean Veteran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 32, No. 1, pp. 53-65, 2014.

[16] K. M. Chang, "The l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6, No. 1, pp. 185-196, 2005.

[17] K. M. Taylor,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2, No. 1, pp. 63-81, 1983.

[18] N. E. Betz, K. K. Voyten,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6, No. 2, pp. 179-189, 1997.

[19] K. H. Lee, H. J. Lee, "The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2, NO. 1, pp. 127-136, 2000.

[20] E. C. Kl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5, pp. 1067-1079, 1996.

[21] H. J. Park, "Perceived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due to self momentum." A master's thesis, p. 16, Korea University. 1996.

[22] J. Y. Yoon, "The Relationshop among the Sport Motivation,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of Collage Basketball Club Participators." A master's thesis, p. 20, Korea University, 2009.

[23] R. W. Baker,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No. 2, pp. 179-189, 1984.

[24] J. W. Hyun,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A master's thesis, p. 20-29, Yonsei University. 1992.

[25] H. W.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patterns and career decision-mak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A master's thesis, p. 26,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2005.

[26]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267-276, 2011.

[27] S. I. Shin, "Differences in College Adaptation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Styles and Ego-Resilience Level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9, pp. 255-276, 2015.

[28] H. J. Choi, M. S. Lee, "The Associations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among Dental Hygiene Freshmen."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39, No. 2, pp. 129-138, 2013.

[29] J. Block,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1996.

[30] M. S. Park,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Ego-Resilience, Perceived Stress,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2, pp. 73-81, 2017.

[31] A. R. Chung, S. H. Yoo, N. A. Ryu,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ollege Adjustment of Juni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12, pp. 535-558. 2011.

[32] C. R. Park, Y. J. Jang, I. S.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Types of Motives for Taking Part in Dance Club."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Vol. 29, No. 2, pp. 253-271, 2015.

[33] M. W. Chi, "Convergence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cape and Psychological Welfare of the Employees in Tourism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2, pp. 277-289, 2017.

김 현 미(Kim, Hyoun Mi)

- 200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사)
- 2010년 8월 : 전주대학교 상담학과 (상담학석사)
- 2016년 8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우석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 관심분야 : 진로상담, 집단상담
- E-Mail : khm2606@naver.com